

3월 4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3월 4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버냉키 발언영향으로 뉴욕증시 하락마감 [DOW: 6,726.02pt (+ 0.55%)	뉴욕증시가 3일(현지시간) `저가 인식`과 추가 하락 경계감이 맞서 등락을 거듭한 끝에 약세로 마감했음. 뉴욕증시가 12년래 최저치로 밀리자, 주가가 싸졌다는 `저가인식`이 확산되며 저점매수세가 유입되어 개장초 주요 지수들이 1% 이상 상승세를 보였음. 그러나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은행주의 반등세가 꺾이며 뉴욕증시는 장막판 약세로 돌아섰음. 주요 지지선 붕괴에 따른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으로 반등시마다 매물이 꾸준히 출회되었고 금융시스템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의회증언도 부담으로 작용했음.
금융시스템 불안감 자극	버냉키 의장은 이날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선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금융권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 지원의 필요성도 우회적으로 피력했음. 버냉키 발언 영향으로 개장초 10% 안팎 급등했던 브로크아메리카(BoA)와 씨티그룹은 상승폭이 강보합권으로 떨어졌고, 골드만삭스와 JP모간체이스는 하락세로 돌아섰음.
잠정주택판매 전월비 7% 감소	1월 미국의 잠정주택판매가 전월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영향으로 다우 지수 구성종목이자 건축자재 소매체인인 홈디포가 장중 5%가 넘게 하락했음. 전미부동산중개업협회(NAR)는 이날 1월 잠정주택판매 지수가 전월대비 7.7%가 감소했다고 밝혔음. 잠정주택판매는 아직 대금을 치르지 않은 매매계약 단계를 의미하며, 기존 주택판매의 선행지표로 활용됨. 이날 지표는 집값 하락 지속으로 잠재 매수자들이 주택구입을 여전히 꺼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현대차 점유율 상승	미국 자동차시장에서 주요 메이커들의 2월 판매량이 40% 안팎 급감한 가운데 현대차의 감소폭은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음. 현대차는 이 같은 선전에 힘입어 미국시장 점유율을 4% 중반대까지 대폭 끌어올린 것으로 추정됨. 3일(현지시간) 미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경쟁 메이커들이 40~50%씩 급감한 것과 다르게 현대차의 2월 자동차 판매는 총 3만 621대로 전년동기 3만 1,090대에 비해 1.5%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유가는 장중 42.02달러까지 상승한 후 다시 39.44달러까지 밀리는 등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가 배럴당 41달러선으로 마감했음. 전일 10%가 넘게 급락한데 따른 기술적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락 하루만에 반등세로 돌아섰음.

제목	주요 내용
1분기 성장률 -5~-8% ..환란 수준	4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민간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국내 예측기관들은 기관에 따라 1분기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5~-8% 정도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음. 환란 당시인 1998년의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은 1분기 -5.3%, 2분기 -7.9%, 3분기 -8.1%, 4분기 -6.0% 등이었음. 지난해 4분기는 -3.4%로 9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음. .
쌍용차 협력사 7~8곳 부도임박	3일 업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유진기업과 유진에스테크, 유진정공 3개 부품사가 지난 2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와 재산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했음. 법원이 이들 3개사의 채권채무를 동결하면서 200여개에 이르는 2·3차 협력사들도 결제대금을 받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우려됨. 게다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유진기업과 유진에스테크, 유진정공 외에 7~8군데가 더 부도위기에 처해있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임.
OECD 국가, 1월 물가 상승률 38년래 최저	OECD는 30개 회원국들의 1월 전년 대비 평균 물가상승률이 1.3%를 기록해 지난해 12월 1.5%보다 0.2%p 둔화됐다고 발표. 물가상승률이 둔화된 주된 이유는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
日토요타, JBIC에 2,000억엔 지원요청	토요타의 금융자회사 TFS는 JBIC가 해외에 진출한 일본 기업을 돕기 위해 도입한 비상 자금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요청. 토요타는 미국 내 법인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JBIC에 약 2,000억엔 규모의 달러화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中경제 상반기 회복-인민銀 부총재	중국 경제가 상반기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수닝 인민은행 부총재가 3일 언급. 블룸버그에 따르면 수 부총재는 전인대 모임에서 기자들과 만나 "매우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4조위안의 경기부양 지출을 2010년까지 2배로 늘릴 것으로 예상.
中-러 손잡고 톈진에 정유공장 설립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내 석유 수요를 맞추기 위해 중국 톈진 북부에 40억 달러 규모의 정유시설을 세우기로 했다고 차이나데일리가 3일 보도. 중국석유천연가스(CNPC)와 러시아 최대 석유생산업체 OAO 로즈네프트(Rosneft)는 빈하이산업단지 내에 정유시설을 설립, 내년에 착공해 2012년에 완공할 예정.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